

[심층보도] >> 3면

글로벌배움터 정견토론회 현장 보고

[기획] >> 5면

국제지역대 학술제, 지역탐사발표회

[인물] >> 8면

김진규 소설가를 만나다

다채로움으로 물든 국제지역대학 아카데미워크



사진: 김경호 기자

에게 기본적인 교양과 소양, 젊은 날의 고민들을 어루만져 주고 싶었다”며 “이번 학술제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인도학과 학술학회 ‘인디아 무비 클립(india movie clip)’은 이들에 걸쳐 세 편의 인도 영화를 상영했다. 각각의 영화들은 인도의 문화, 종교, 볼리우드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했다. 영화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인도에 다가갈 수 있었다.

둘째날엔 로컬리티 챌린지 탐사보고회가 열렸다. 광역특화전공 소속 10개 팀 37명의 재학생이 참가한 탐사보고회는 10개월간 진행된 탐사과정 및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탐사보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도-남아시아 1팀의 정소희(국제·인도 13) 양은 “탐사보고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지만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많은 학생들에게 로컬리티 이중전공을 추천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넷째날 오전엔 로컬별 지역전문가 특강강좌가 있었다. 광역특화전공 및 국제지역대학 소속 학과들과 연관이 깊은 유라시아, 인도-남아시아, 브라질-중남미, 마그레브 이 4개의 지역전문가 특강이 백년관에서 동시에 열렸다. 재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지역의 최신 동향 및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같은 날 오후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는 ‘킹 오브 프레젠테이션(King of Presentation)’대회가 진행됐다. 로컬리티 부문과 자유 부문으로 나눠 본선에 진출한 6개 팀이 파워포인트 발표로 경합을 벌였다. 자유주제 부문 최우수상은 아프리카학부 ‘우크렐리’팀, 로컬리티 부문 최우수상은 브라질학과 ‘반데이 란치스’팀에게 돌아갔다.

이번 학술주간에 참여한 학생 수는 2,450명에 달했다. 학술제에 참여한 박용준(국제·브라질 14) 군은 “세계화에 발맞춰 지역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로컬리티의 목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유시현 기자 91qhdodb@hufs.ac.kr

▲12일 킹 오브 프레젠테이션(King of Presentation)에 참가한 학생들이 열띤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국제지역대학과 로컬리티 사업단이 주관하는 ‘국제지역대학 아카데미 워크(Academy Week)’가 열렸다. 5일간 진행된 국제지역대학 학술제는 12개의 기획특강과 학회들의 학술발표회, 보고회, 발표경연대회, 전시회, 학술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기획특강은 △산학연계특강△지역전문가특강△직무특강△인문학특강으로 진행됐다.

9일 개회식은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국제지역대학 홍완석 학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이후 김인철 총장의 축사가 있었고 국제지역대 학회의 축하 공연 및 15학번 신입생들의 단편 영화제로 이어졌다.

백년관 로비에는 로컬리티 챌린지 사진전이 전시됐다. 로컬리티 챌린지에 참가한 10개의 탐사팀이

직접 촬영한 현지 사진들을 고화질 액자에 담아 전시했다. 공학관 207호에서는 ‘화자’, ‘밀애’, ‘발레 교습소’를 각색 및 연출한 변영주 영화감독을 초청해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 ‘창의적 글쓰기의 조건 : 같이 보고 다르게 생각하기’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아낌 없는 조언을 전했다. 오영민 로컬리티 사업단 책임연구원은 “인문학 특강을 통해 학생들

끝없는 11월의 악몽

서울배움터 제5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됐다. 지난 17일 오전 6시에 마감된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등록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울배움터는 2011학년도부터 5년 연속 11월 선거 무산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서울배움터는 원칙적으로 선거가 무산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시켜 자리를 메워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총학생회칙의 제·개정으로 인해 현 총학생회장단이 사퇴하지 않는 한 다음해 4월 중에 실시될 재선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임기가 연장된다. 김동규(서양어·노어 12)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계속되는 선거 무산에 대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 개인적인 일들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각박해지다보니 점차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글로벌배움터는 자격 심사를 마친 정식 입후보자가 등록돼 제37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정후보는 김도현(국제지역·아프리카 13) 양, 부후보로는 최지환(통번역·일본어 11) 군으로 선거운동본부 명칭은 한울이다. 한울 선거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지정된 선거운동시간을 위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의 1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정식 후보 등록 후 일주일 만에 받은 징계로 학생들의 빈축을 샀다.

글로벌배움터 제37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	
선거 유세 기간	11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 오전9시~오후6시
투표 기간	11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투표장소	인문경상관, 어문관, 공학관, 자연과학관

박은혜 기자 90iron@hufs.ac.kr

그들만의 리그? 함께 즐기는 리그!

지난 17,18일 양일간 글로벌배움터 백년관 컨퍼런스홀에서 제9회 이공계 학술제가 열렸다. 이공계 학술제는 공과대학(이하 공대)과 자연대학(이하 자대)이 공동으로 주관해 △학술 설명 부스 △참여형 실습 △E스포츠로 구성됐다.

이번 학술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홍보한 AQL팀을 포함해 총 7개의 팀이 참가했다. 다음으로 ‘Eco-safety’는 배양실험을 통해 독성원인물질을 찾아내는 방법을 소개했고, ‘EESL’은 광물 찌꺼기의 정화 및 미생물 연료전지를 활용해 친환경적인 전기 생산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도와줄게’는 건물 내에서 시각장애인을 안내해주는 로봇시스템

을, ‘BOSS’는 지하주차장의 자리 표시 시스템에서 착안한 헬스 기구 시스템을, 그리고 ‘I am E’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해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R-CUBE’는 로봇 인형 뽑기 게임을 제작했다. ‘Eco-safety’에 참여한 허호관(자연·환경 11) 군은 “학술제를 계기로 실험했던 내용들을 응용해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좋았다”며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은거울, 손난로, 립밤을 만들며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형 실습도 열렸다. 스태프로 참여한 이현아(자연·화

학 15) 양은 “비전공 학생들이 쉽고 실용적인 체험을 통해 신기해하고 흥미를 느끼는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E스포츠 대회를 준비한 김근우(공과·산경 13) 공대 학생회 사무국장은 “학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구성하고자 요즘 인기있는 E스포츠 대회를 열게 됐다”며 “더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였고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기쁘다”고 말했다. E스포츠 대회는 리그오브레전드와 스타크래프트 총 두 개의 종목으로 진행됐다.

경지영 기자 91abraxas@hufs.ac.kr

통일을 위한 준비 그 첫걸음, 통일부 장관 특강 열려

“가끔씩 자기 전에 통일을 꿈꾼다면 통일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 10일 서울배움터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방문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의 주제로 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남궁영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이 개최를, 정치외교학과 이대진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특히 이금순 통일교육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 장관은 “분단이 해소되고 통일이 되면 국가경쟁력은 더 강해질 수 있고 세계로 도약할

수 있다”며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뒤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 통일을 위한 접근법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설명해나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중 하나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약 1시간의 강연 후 강연자와 통일에 대해 학생들

과 홍 장관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비롯해 통일을 위한 다른 방안 등 수준 높은 질문들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학생들과의 기념촬영으로 강연은 마무리됐다. 강연에 참석한 이소정(사회·정의 15) 양은 “이번 강의를 통해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을 일깨울 수 있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게 돼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명지 기자 91signpaper@hufs.ac.kr

케이무브 멘토링 알짜배기 특강 열려

해외 취·창업 멘토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 가져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김 엔젤라도 특강 참여

지난 18일 서울배움터 오바마홀 국제회의실에서 '제1차 케이무브 찾아가는 멘토링'이 개최됐다. '케이무브'는 2013년도부터 정부부처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이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케이무브 사업은 크게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창업 △해외봉사로 나뉜다. 멘토링은 케이무브 사업의 일환으로 멘토단 운영을 통해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멘토는 2년 이상 해외에서 취업 또는 창업 등의 경험이 있는 신청자 중 선정되며 멘티는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청년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제1차 멘토링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114명의 멘티가 선발됐다. 멘토링은 우리학교를 시작으로 총 10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방송인이자 피아트 크라이슬러(Fiat Chrysler Automobiles) 한국지사 차장 알베르토 몬디(Alberto Mondì)와 방송인이자 영어강사 김 엔젤



▲방송인이자 영어강사 김 엔젤라가 케이무브 멘토링 특강을 펼치고 있다.

라(Angela Kim)의 특강으로 구성된 1부와 멘토 릴레이 특강,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알베르토 몬디는 '알베르토의 다섯 가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취업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방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송인이자 피아트 크라이슬러 한국지사 차장 알베르토 몬디가 케이무브 멘토링 특강을 펼치고 있다.

것이 그 나라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를 최대한 따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엔젤라는 '영어 비즈니스 인터뷰 및 이

력서 작성 팁'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녀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어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사과하지 말 것', '상대방과 눈 마주치는 것을 부끄러워 말 것', '인연을 맺은 사람에게 짧은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핑큐 노트(Thank you note)를 보낼 것' 세 가지를 꼽았다. 사전에 참가자들의 영어이력서를 받아 직접 첨삭하며 이력서에 적합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다. 1부 행사에 참여한 이승열(상경·국통 10) 군은 "두 강의 모두 좋은 정보를 제공했다"며 "특히 김 엔젤라의 강의는 후에 언론 분야로 진출하거나 해외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할 것 같다"고 전했다.

2부에는 김강수, 김윤환, 이응관 멘토가 참석해 각각 말레이시아, 미국, 오세아니아에서의 취·창업에 대한 15분 정도의 강연을 펼쳤다. 강연을 마친 후에는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기념 사진 촬영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정선진 양은 "해외에서 직접 취·창업을 했던 분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평소 해외인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웹 사이트에서 얻는 정보에 비해 생생한 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은혜 기자 90iron@hufs.ac.kr

생협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맞이

학생들 봉사로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김장, 사랑의 연탄과 쌀 나눔

지난 10일 오전 9시 반 글로벌배움터 생활협동조합원(이하 생협) 학생들이 김장 봉사에 나섰다. 이는 모현면 자치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모현면 새마을부녀회가 주최한 행사다. 특히 이번 김장봉사에 쓰인 배추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재배해 수확한 것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600~700 포기의 배추를 직접 김장해 독거노인 120~130가구에 당일 전부 전달했다. 조현주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장은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뜻깊은 활동"이라며 "쌀쌀한 날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줘 도움이 됐다"고 참가한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13일 오후 2시 반 학생회관 앞에서 생협 연탄나눔운동 발대식이 열렸다. 발대식에는 이윤석 생협 이사장, 우성원(통번역·중국어 12)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장, 이송근 총괄지원팀장, '좋은 사람들'

봉사단체, 생협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나눔운동으로 생협은 어렵게 겨울을 나고 있는 18만 가구에 연탄을 지원한다. 또한 북한에도 연탄을 전달할 예정으로 계층과 이념, 지역을 넘어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취지를 실천하고 있다. 이날 생협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모현 인근지역 7가구에 사랑의 연탄과 쌀을 전달했다.

주명선(자연·수학 12) 생협위원장은 "매해 뜻깊은 활동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다음해에도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영숙 '좋은 사람들' 봉사단체 회장은 "겨울로 가는 길목이라 날씨가 무척 춥다"며 "학생들이 이웃을 돕는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말했다.

유시현 기자 91qhdodb@hufs.ac.kr



▲우리학교 생활협동조합원 학생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모현면새마을부녀회 사람들과 함께 김장을 하고 있다.

직무 박람회로 취업에 한 걸음 다가갔어요

글로벌배움터 직무 박람회 열려

진부한 조언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 얻을 수 있어

지난 10일 글로벌배움터 백년관에서 진로취업지원센터,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잡코리아가 주최하는 '글로벌 잡페어(Global Job Fair)' 직무 박람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금융/영업/마케팅 △유통/서비스/항공 △이공계(IT) △경영지원 △외국계/공기업/사회적기업의 인사 및 직무 담당자와 상담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이벤트 존(Event Zone)에선 창업 타로카드, 메이크업 서비스,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상담을 기다리던 장지웅(경상·경영 12) 군은 "경영/무역 분야 상담을 받을 계획"이라며 "관심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담을 마친 박기득(경상·국경 11) 군은 "실제 업무 종사자와 상담해 더 현장감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군

은 "다만 상당 기업들이 대기업 위주라 중·강소기업의 정보는 보다 적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 담당자들은 우리학교 학생들에 대해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고, 적극적인 구직노력과 타인과 다른 구직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변민선 글로벌배움터 진로취업지원센터 대리는 "학생들이 스펙을 초월하여 직무역량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며 "평소에도 진로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취업관련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취업을 응원했다.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이번 직무박람회에 이어 실전직무역량 강화프로그램 교육과 12월에는 직무별 현직자 스토리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록 기자 91rock@hufs.ac.kr

홈플러스,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자

홈플러스 앱 공모전 열려...사용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앱 개선 예정

우리학교 모바일 앱 홈플러스(Hufs plus) 아이디어 공모전이 이번 달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다. 공모전의 주제는 편리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개발이다. 교내 구성원 전체가 개인 또는 2인 이하 팀으로 참가 가능하며 공모 수엔 제한이 없다. 심사 방법은 1차는 서류, 2차는 발표 심사로 진행한다. 1차 심사 기준으로 △창의성(독창성, 참신성) △실현가능성(유용성, 개발 및 실현 가능성) △흥미도가 있다. 1차 심사 가운데 5개작을 선정 후 2차 발표(내용 전달력, 적정성) 심사로 수여 상을 결정한다. 시상 내역은 대상 1팀 100만원, 최우수상 1팀 50만원, 우수상 1팀 30만원, 장려상 2팀 20만원의 상금 및 상장이다. 1차 심사결과 발표는 2016년 1월 8일 개별 연락, 2차 발표 심사 및 시상 같은 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을 주관하는 오재민 정보통신팀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앱 설치를 독려하고 편리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앱 제작은 정보통신팀에서 주도했지만 개선에 있어서는 실제 앱을 사용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홈플러스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출시한 홈플러스는 현재 학교 전체 구성원의 약 55%인 7800여명의 사용자를 기록했다.(11월 중순 기준) 하지만 '같은 내용의 푸시(Push, 앱 내에서 보내지는 메시지)가 몇 번씩 전달되며 앱 이외에 문자메시지로도 전송 된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오 팀장은 "푸시를 전송하고 2시간 이내 수신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문자로 다시 전송 된다"며 "중요한 정보인데 확인하지 못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재전송 기능을 사용 한다"고 답했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정보통신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김정록 기자 91rock@hufs.ac.kr

그들의 공약에 물음표를 던지다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선거 정견토론회

한울 공약	
학생복지	인문경상관 내 스튜디오 확충
	인문경상관 내 카페 신설
	학회실 신설
	교내 시설 점검 및 정비
	기숙사 식비 잔여 금액 환불
	남자휴게실 설치
학제	건물 별 상비약 및 우산 구비
	학제 관련 자치 기구 발족
	신설학과 체계적 커리큘럼 및 해당시설 마련 촉구
등록금	잉글리시존 가산점 시스템 재논의
	실습비 사용 내역 공개
기타	장학금 수혜율 증진
	학생증으로 승차권 구매 · 도서관 출입 · 백년관 열람실 좌석 예약 기능 도입
	글로벌배움터만의 차별화된 이공 · 인문 연계 공모전 추진

지난 19일 글로벌배움터 교양관 1층 밀라노에서 총학생회 선거를 위한 후보의 정견토론회가 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와 단일후보인 한울, 언론 4사(외대학보, 디아거스, 교지편집위원회, FBS)와 학생들이 함께했다. 정견토론회는 우성원(통번역 · 중국어 12)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입후보자 기초발언 △학내 언론사 질의 및 입후보자 답변 △일반 학생 질의 및 입후보자 답변 △입후보자 마무리 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학내 언론사 질의〉

아거스 : 교양관에 있는 잉여공간을 이용해 학회 대실 시스템 만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의 대실 시스템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울 : 학교에 빈공간이 생각보다 많다. 총학에 속한 세미나실과 행정부서의 빈 공간을 세미나 실이나 학회들이 연습할 수 있는 전면거울이 설치된 무도실로 바꾸겠다. 이런 무도실도 대실 시스템에 등록해 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학교 내 잉여공간을 이용해 남양(남학생 휴게실)을 설치하겠다. 당선된다면 이번 해 어문관에서 통번역대, 국제지역대가 배정받은 자료실 공간에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지 : 인문경상관의 리모델링이 다음 6월에 예정돼 있다. 리모델링이 이미 결정됐지만 선거공약으로 인문경상관의 카페와 스튜디오를 추가할 것임을 내세웠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한울 : 인경관 리모델링이 이미 확정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편승해 업적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 어문관 리모델링 당시에도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했지만 과방이 전면 유리로 설치돼 학생들의 불만을 샀다. 인경관 리모델링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약에 추가했다. 어제 기획건설팀에 문의해본 결과 인경관 리모델링 조감도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학교와 학생과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 요구를 할 때 인문대, 경상대와 함께 총학생회가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 공약 이행에 있어 오랫동안 바라온 리모델링이 연기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교지 : 이공 · 인문 연계 공모전 추진 방법이 상당히 모호하다.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한울 : 이공 · 인문 연계 공모전에 대해 말하자면 글로벌배움터의 특성을 살린 공모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에 포함했다. 현재 공대와 자대에 대한 홍보가 현저히 부족하다. 어문계열과 함께 공대와 자대를 끌어올려야 한다. 예를 들어 동북아시아 팀이 일본에

역사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가정하자. 이에 사학과 학생이 투입된다. 공과대학 학생이 관련 어플을 만들 것이며 일본어통번역학과 학생이 해당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한다. 경상대학 학생은 마케팅 전략을 세울 것이다. 모든 단체 참여하는 공모전 만들 계획이다. 이공계, 인문계열 학생들이 모두 발전할 수 있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외대학보 : 출마 선언문에서 지난 해 동상이 세워졌고 이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약집엔 동상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데 당선이 된다면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

한울 : 우리학교 동상은 미술품에 속한다. 동상을 합법적으로 철거하기 위해선 동상을 만든 작가, 총장, 재단 이사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먼저 평화적으로 포스트잇 붙이기 운동을 할 계획이다. 동상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게도 직접 연락해볼 것이다. 우리는 동상이 철거돼야 하는 이유를 밝혀 작가를 납득시킬 것이고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FBS : 학제관련자치기구에 대해 질문하겠다. 공약에서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자치기구 발족해 지속적으로 성적평가방식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적평가가 제도와 관련해 지속적인 논의도 필요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절충안이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적평가방식 논란에 대해서만큼은 총학이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생각해둔 것이 있나? 또 학제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선 이미 학생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차별화된 운영방안이 있나?

한울 : 성적평가방식이 바뀐 후 학제개편위원회는 작년 겨울, 이번 여름방학동안에만 운영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해 차별화할 것이다. 학종지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학종지는 학기 초에 너무 많은 학생들의 문의로 행정이 마비가 될 정도라고 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문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학종지도 대답하고 싶어도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총학에서 이러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아거스 : 지난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었는데 일주일도 늦게 시작했으며 공약도 늦게 나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했고 선거운동본부는 징계도 받았다. 공약은 왜 이번주가 돼서야 낸 것인가?

한울 : 공약집은 여름방학부터 준비해왔지만 개강하고 나서 공약을 제대로 쓰게 됐다. 개강 후 자대 · 공대에 필요한 공약들을 알아보고 추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 총학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공약집을 내는 두 번의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고 수정하는 작업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온전한 공약집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강의실을 방문하고 학생들을 찾아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늦게 선거 유세를 하게 됐다. 정말 죄송하다.

외대학보 : 학생증을 버스크드로 사용가능 하겠다는 공약은 예산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가?

한울 : 충분히 학생증을 승차권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학생증 하나에 교통카드 칩을 삽입하는데 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학교 측과 이야기해봤는데 전교생의 학생증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1억 정도가 든다고 한다. 1억 정도의 금액은 학교 예산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FBS : 잉글리시 존과 관련해 질문하겠다. 교양 영어의 가

산점 제도문제도 있지만 기존에 잉글리시 존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점들도 많다. 이 문제들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나와야한다. 가산점제도 실행여부와 횡수에 대한 파악만 다를 것인가?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들에 대해 여론조사도 실시할 것인가?

한울 : 가산점 시스템이 생기면서 모든 잉글리시 존이 포화상태가 됐다. 세미나 강의를 들어야 하는 졸업예정자들이나 가산점을 받기 위해 듣는 신입생들이나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잉글리시 존 시스템을 재논의 하겠다. 기존 문제점중 하나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프로그램 또한 다양해져야 한다. 또한 학과마다 들어야 하는 잉글리시 존의 횡수가 다르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논의해볼 것이다.

FBS : 기숙사 식비 환불과 관련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해당 식품업체와 다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있나?

한울 : 기숙사 식비 잔여금액 문제는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됐어야 한다. 과거에도 이 정책을 폈던 2013 채움 총학생회와도 이야기해봤다. 그들도 회사 측과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기숙사 식사 끼니들의 폭이 너무 크다. 식비의 잔여금액 환불이 안 된다면 분기별로 식사를 신청하거나 끼니를 세분화해 남은 기숙사 식사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교지 : 공약들에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베껴 짜깁기 한 것 같다는 비판도 있다. 큰 권력을 지닌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공약에서 전혀 보이지 않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울 : 공약집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 아닌 기본적인 것들이다. 최근 사회에 많은 논란을 야기한 도서관 물래카메라 사건, 안전 문제, 어문관 숲길 문제 등은 이미 이전에 바뀌었어야 했다.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언급되던 문제들을 그냥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했던 것들이다. 그렇기에 공약집에 넣었다.

〈학생 질의〉

최명일(통번역 · 스페인어 09) : 남자로서 남량이 생기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량이 기준에 생기게 됐던 취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여량 자체는 단순히 휴식 공간으로서 의미를 넘어선다. 남량이 그 이상 가치가 없다면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고 결국엔 쓰레기통처럼 변할 것 같다.

한울 : 남량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다. 하지만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휴먼구역이 될 것이다’와 같은 많은 우려도 있었다. 이는 남량 지킴이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학기 동안 어문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실패하면 과감히 폐지하겠다.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다른 건물에도 차근차근 늘려가겠다.

이재현(통번역 · 독일어 08) : 앞에서 질문한 기숙사 식비 환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답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울 :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 학생들이 식권카드를 얼마나 많이 사고파는지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이 공약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금전적 문제, 회사와의 협의 문제, 임대료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업체와의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은 내가 산 것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



TPP와 한국경제



오동휘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

중국은 70년대 말경, 유럽사회주의 국가들은 90년대 초부터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며 국가 간 무역규모가 빠르게 확대됐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무역확대를 위해 무역 자유화 조치가 폭넓게 강조됐다. 무역자유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세계무역정책의 수단으로는 국가별로 맺어지는 양국 간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가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최초로 한-칠레 FTA 이후 2012년에 한-미 FTA, 2015년에 한-중 FTA를 포함해 세계 각국과 수많은 FTA를 체결했다. 관세율의 감면 폭과 감면기간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된다. 어떤 상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 가격(수출국의 수출 가격)과 자국기업의 동종 상품 판매가격을 비교한다. 이후 자국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외국기업의 수출가격이 공정한 것인가를 검토한다.

수출가격의 공정성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지식 재산권의 침해여부, 수출국 정부의 환율 및 금융정책, 공해문제 등과 관련해 판정될 수 있으므로 교역 국에 따라 다양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수출업자는 여러 가지 자료와 기업정보를 제출해야 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밖에도 FTA를 체결한 국가 수가 많을수록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부품 등의 원산지에 관한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이 제각기 달라 FTA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다. 또한 급속히 진전되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 상품거래 이외의 분야(투자, 서비스산업,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인 자유화 조치가 이뤄질 필요성이 증대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대두된 것이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지역 경제동반자 협정)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같은 다국 간 FTA(Mega FTA)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FTA는 관세감면 등의 특혜를 체결국 사이에서만 주고받는 배타적인 장치로 협정체결국들은 새로운 무역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비체결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장을 잃게 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다국가 간 체결되는 메가 FTA 역시 단순한 경제협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배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에 또 다른 관심이 집중된다. 즉 세계경제질서를 어느 나라가 주도할 것이며, 주요국간의 패권다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의 귀추가 주목된다.

TPP는 5년 반 동안의 협상을 거쳐 지난 10월 공식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RCEP에는 적극적으로었으나 TPP에는 관망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TPP가 공식적으로 발족되자 뒤늦게 참여의사를 밝혔다. RCEP에 참여의사를 밝힌 나라는 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 16개국으로 공식 발족은 다음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는 협정문의 많은 부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근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최근 선례에 비춰 미국, 호주, 베트남 등 쌀 수출국으로부터 강한 시장개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기계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일본이 TPP로 관세 감면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FTA 체결로 얻게 된 선점효과가 무력화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TPP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양국 간 FTA를 체결한 바 있다. TPP 협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TPP 참가국에서 생산한 원료나 중간재는 자국 산으로 인정해 특혜관세를 적용받도록 돼 있는 누적원산지 규정이다. 예컨대 베트남에서 생산한 부품을 일본에서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해도 일본은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누적원산지 규정은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매우 유리한 조항이다. 셋째, 자동차 부품업종은 미국시장 등에서 일본과 강도 높은 경쟁이 예상된다. 완성차의 경우 한-미 FTA 때문에 TPP 체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가전제품도 일본기업들에 비해 우리기업이 불리한 입장이거나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은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무관세 적용 대상이므로 TPP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다섯째, 섬유업종에서는 우리기업들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일본 등 TPP 역내 국가들은 역외국인 중국보다 역내국인 베트남으로부터 의류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섬유와 의류부문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수출국인 베트남에 우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우리나라 또한 누적원산지 규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국영기업을 통한 비상업적 보조,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금융시스템 안정과 재정운영 등에 관한 정책들이 TPP 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경우 TPP 가맹국들과 협의해야 한다. 이로 우리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TPP 협상의 세부사항이 확정되고 각 가맹국회의의 비준을 거쳐서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이 주도하는 RCEP 가맹국과의 협상도 계속해야 하므로 두 가지 협상에 균형을 유지해 실리를 거두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역자유화의 실리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외대인이 만난 세계

오래된 유토피아, 쿠바



눈발 날리는 북유럽에서 오들오들 떨다가 무더운 열대로 날아오니, 옷을 벗어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아메리카 대륙 중에서도 라틴아메리카의 관문, 정중앙 멕시코다. 하지만 식욕을 자극하는 타코 냄새에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 며칠간의 칸쿤(Cancun)을 뒤로 하고 다시 비행기를 탔다. 그렇게 무엇에 홀린 듯 다급히 온 곳은 시가와 체계바라의 나라 쿠바다.

아바나(Havana) 공항에 내리자마자 겨우 두 시간 거리인 멕시코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다. 게다가 통용되는 화폐도 두 가지. 쿠바는 두 개의 화폐를 쓴다. 쿽(CUC)과 모네다(CUP)는 각각 외국인과 내국인이 쓰도록 한 화폐인데 사실상 내외국인 모두, 둘 다 섞어 쓰고 있다. 하지만 어떤 화폐를 쓰느냐에 따라 체감물가가 24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에 배낭여행자들도 주로 모네다를 쓰며 여행한다.

셔틀버스도 지하철도도 없는 공항에서 긴 실랑이를 거쳐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 70년대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오래된 스페인풍의 건물들과 낡은 기차를 토하며 돌아다니는 형형색색의 올드카들. 초콜릿향 시가 연기 보다는 매연이 가득하지만, 아미고(Amigo)라며 바빠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불러 세우는 쿠바노들이 벌써부터 친근하게 느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냐고 묻는 쿠바. 그러나 이곳에서만큼은 치안에 대해 자신있게 '노프라블럼'을 외칠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라는 특성이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안전한 치안을 보장하고 있다. 새벽 두 시에 거나하게 취해 택시를 잡느라 비틀거리는 이방인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도 누구하나 해코지 하는 사람이 없다.

현재 미국과 쿠바는 수교를 재개했지만, 체류당시에는 수교 전이라 폐쇄적인 느낌이 더욱 강했다. 세상과 담을 쌓은,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세운 쿠바인들의 유토피아. 비록 숫자로 월급은 적어도, 이곳에서는 그닥 상관하지 않는 듯하다. 광장에서는 저녁마다 사람들이 흥겨운 음악에 살사 스텝을 나누고, 카리브해의 파도가 몰아치는 방파제 말레콘에서는 시가를 뽀빠뽀빠 피우는 한량들이 늘어앉아 있다. 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쿠바의 시간은 느리게 느껴진다.

조금 더 활기찬 쿠바의 아바나를 보고 싶다면, 오비스포(Obispo) 거리로 가보는 것도 좋다. 쿠바를 사랑한 문학가 헤밍웨이가 머무르며 원고를 쓰던 호텔방도 있고, 고급호텔에서 열리는 살사쇼도 볼 수 있다. 게다가 모든 직원이 공무원인 국영레스토랑에서 값싼 랍스터를 먹을 수도 있다. 값비싼 서양식 호텔부터, 저렴한 쇼까지 여행의 스펙트럼 또한 굉장히 다양하다.

살사클럽과 람이 넘쳐나는 수도 아바나 말고도 쿠바는 둘러볼 곳이 많다. 드넓은 지중해를 배경으로 관영 리조트들이 있는 바라데로(Varadero),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의 혁명을 주도한 중남미의 로맨티스트, 체 게바라 동상이 있는 산타클라라(Santa Clara), 백인과 혼혈인 몰라토파가 주를 이루는 서부와 달리 흑인들의 고유한 문화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산티아고 데 쿠바(Santiago de Cuba).

덜덜 거리고 오래됐어도 여전히 새빨간 광택으로 시선을 유혹하는 구식 세단을 타고 쿠바를 가로지르는 것은 아직도 거의 모든 여행자에게 충분히 판타지다.

나참술(상경 · 경제 09)

열정과 패기로 뭉친 신입기자를 찾습니다!

• 외대학보사 92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대상 : 양 배움터 4학기 활동이 가능한 학생
지원서 마감일 : ~11/30(월)
필기시험 및 면접일 : 12월 5일(토)
합격자 발표일 : 12월 6일(일)

• 지원서 수령 및 제출

- ▶서울배움터 국제학사 401호 02-2173-2504
- ▶글로벌배움터 학생회관 212호 031-330-4112
- ▶외대학보 이메일 hufspress@hanmail.net

문의사항 연락처 : 이진형 편집장 010-7323-1915

10개월의 대장정, 그 열정의 결실

로컬리티 사업단은 글로벌배움터 국제지역대학 소속 9개 학과와 함께 교육부 CK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국제지역대학과 로컬리티 사업단이 주관한 ‘국제지역대학 아카데미 워크(Academy Week)’가 진행됐다. 특히 둘째날 ‘제 1회 로컬리티 챌린지(Locality Challenge) 탐사보고회’가 많은 관심을 모았다.

광역특화전공 소속의 학생 37명을 10개 팀으로 구성해 현지에서 체험한 경험담과 탐사성

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10개월 간의 준비 끝에 진행된 탐사보고회는 로컬리티 사업단과 학생들의 노고가 그대로 묻어났다. 오영민 로컬리티 사업단 책임연구원은 “첫번째 탐사보고회 이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미흡한 부분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무사히 다녀온 것만으로도 큰 박수를 쳐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우수상 : 인도남아시아 1팀 <야프리아>

약 2주간 스리랑카로 탐사를 떠난 야프리아는 실론티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정했다. 실론티는 ‘스리랑카의 차’라는 뜻으로 과거 스리랑카 국토인 시실론에서 이름을 따 실론티라 명명하게 됐다. 아편전쟁 이후 영국은 차를 스리랑카에서 직접 재배했다. 양질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기후로 스리랑카의 차 플랜테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스리랑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에도 차 산업을 계속 유지했고 차 산업의 강대국으로 발전했다.

스리랑카의 차 공장은 보통 사유지에서 차를 경작한다. 노동자가 재배한 차의 잎을 수확해오면 공장들은 그에 대한 임금을 제공한다. 공장에서 차 잎을 건조, 발효, 분쇄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맛의 밀도 등을 조절해 차를 생산한다. 대개 스리랑카 대형백화점에 있는 차 가격은 비싸다. 대형백화점은 화려한 포장과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을 만한 블렌딩으로 향기로운 과일향을 가미해 차를 판매한다. 보통 부유층, 관광객이 목표고객이다. 반면 일반 마트는 간단한 포장과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층이 목표고객이다.

판매되는 차들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소비된다. 티 샵(tea shop)에서는 홍차 카테일 등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으며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 티 샵은 매우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원하는 차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온도와 시간을 정한 티를 대접한다. 이에 반해 일반 서민들은 보다 저렴한 차를 소비한다. 값이 떨어지는 차들은 쓴 맛이 나기 때문에 우유와 설탕을 가미해 마신다.

스리랑카인의 차 소비문화를 통해 그들이 가진 부에 따라 사람들이 즐기는 차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국의 식민지 시대처럼 두 계층으로 나뉜 모습을 연상케 했다.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다라는 말처럼 스리랑카에는 어두운 식민지 시대의 그림자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수상 : 마그레브 1팀 <잃어버린 2시간>

모로코 탐사에 앞서 모로코 청년들이 가진 고민, 사회문제, 프랑스어와 아랍어 사용에 관한 생각을 알고자 관련 설문지를 준비해 갔다. 모로코인들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 사실 모로코의 공용어는 아랍어다. 그러나 대학 수업이나 방송에서도 공식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 역사가 있지만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적다.

모로코에서 아랍어와 프랑스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7명의 학생들에게 답변을 얻었다. 17명 중 11명이 아랍어, 4명이 프랑스어, 2명이 프랑스어와 아랍어 둘 다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대다수는 아랍어에 대해 모국어이며 무슬림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선호한다고 답했다. 프랑스어 선호 이유로는 전공 교재 언어이며 과학적으로 진보된 언어라는 의견이 있었다.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선호한다고 답변한 학생들은 아랍어는 모국어로 가족들과 함께 쓰고 친밀도 높은 언어며 프랑스어는 국제적인 언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15명의 학생에게 대학교 수업에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8명의 학생이 프랑스어라 답했고 6명의 학생이 프랑스어와 영어, 1명의 학생이 영어라고 대답했다. 이 결과로 대부분 수업이 프랑스어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라고만 답한 한 명의 학생은 전공이 영어였기 때문이다. 영어를 전공하는 학생 이외에 나머지 전공들에서도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로코 대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에 관련 생각을 알기 위해 전공 선택 이유를 물었다. 15명의 학생 중 10명의 학생이 ‘전공이 좋아서’라고 답했다. 나머지 학생은 ‘취업에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우리나라에서 내신점수 혹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하는 것에 반해 모로코 학생들은 개인의 생각을 반영해 과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7명에게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7명의 학생이 청년실업이라고 답했다. 5명의 학생이 교육시스템, 2명의 학생이 약물 중독 나머지 학생들이 부패, 복지 등의 다양한 답변을 내놨다.

탐사 후 알아낸 점은 모로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진로, 사회에 대해 걱정이 많은 우리나라 학생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장려상 3팀 중 1팀 : 인도남아시아 2팀 <으샤으샤>

인도는 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와 넓은 영토를 갖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곳이 인도다. 이러한 인도에서 우리나라 공정무역 활성화방안을 모색해봤다.

공정무역이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적 형태의 교역이다. 공정무역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 커피 프랜차이즈, 더 바디샵과 같은 대기업들은 공정무역을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해 생산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값에 판다.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돈을 지불한다하더라도 공정무역 상품 생산지역의 농업인들은 망해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공정한 무역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방안을 모색했다.

델리에 있는 전통시장인 카리바올리 향신료 시장을 방문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된 각종 향신료와 곡물이 거래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향신료 도매 시장이다. 카리바올리 시장은 지난 수세기동안 각종 향신료와 식재료 교역과 더불어 각기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통로이자 교류의 땅이었다. 이곳에선 외국 유명 기업의 간판을 찾아보기 힘들다. 상인들은 외국의 대기업들을 통해서가 아닌 그들의 방식과 전통을 유지하며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마날리에선 카펫과 술을 제작하는 가내수공업자를 만났다. 이들이 직접 만든 물건은 중간 업체와 거래된다. 이후 중간업체를 통해 현지 상점과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진행되고 있다. 탐사 중에 마날리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결과, 중간업체를 통한 무역거래가 아닌 마날리 소상공인과 직접적인 거래가 더욱더 가내수공업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 번째로 레의 ‘에콜로지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선 지역주민들에 의한 공정무역이 활발히 이뤄지며 지역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전통문화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변화와 개발을 이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주민들은 친환경적으로 보온시설, 생활용수를 보급에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그들의 독특한 지역예술이 잘 남아있는 특성을 이용해 지역 여성들은 수공예품을 만들어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수출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생산 활동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스리나가르의 파시미나를 현지와 직접 거래하는 업체와 만났다. 카펫이나 스카프에 대한 인기가 많아질수록 현지 스리나가르 내부에 대규모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장의 인근 지역 시장 점유로 수공업자는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파시미나는 그들이 열 번이 넘는 공정을 거친 수공업자의 것보다 10분의 1정도 가격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이 중 베레토크라는 국내 파시미나 벤처기업은 스리나가르 현지 수공업자와 거래하고 있다. 베레토크는 수공업자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들의 전통과 제조기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교역한다. 국내에서 2~30대 젊은이들을 목표로 하며 온라인 마케팅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현지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며 이렇듯 공정무역으로 내세워 마케팅효과를 이용하는 대기업들의 거래보다 베레토크와 같은 기업들이 더 공정무역과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공정무역이란 이름만을 내세워 그것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현지 사람과 생활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거래가 아닌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불공정한 거래에서 벗어나 환경과 인권을 보호하는 거래다.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기업들이 많아져 현지 토착주민들과 거래가 늘어나고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무역이 우리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길 소망한다.

유시현 기자 91qhdodb@hufs.ac.kr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담하기

비온 뒤
땅은 더 단단해진다

천성이 소극적인 내가 학보사를 지원하는 데엔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더욱 91기 수습기자에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큰 성취감을 느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막연하게 언론사에서 일하는 것에 흥미가 있었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후 두 달간의 방중교육을 통해 언론이 결코 만만치 않은 곳임을 알게 됐다. 학기 중에 나갈 기사들을 위해 제안서를 쓰는 일부터 취재까지 쉬운 것이 없었다. 정기자가 된 후엔 내성적인 성격이 발목을 붙잡았다. 모르는 학생들을 잡고 인터뷰하는 것과 각 부처팀장님들과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리는 일도 두려웠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은 인터뷰에 호의적으로 답변해줬고 대부분의 교직원분들도 친절했다.

기자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호는 세 번째 호다. 8면이라 내가 맡은 세민전 일 정변경 기획기사 하나만 들어가 부담됐다. 세민전 기사는 처음부터 취재가 녹록치 않았다.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이기도 했고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사람들도 없었다. 단순히 진실을 밝히려는 나의 노력에 대해 공격적인 기사를 쓴다며 비난하는 시선도 있어 견디기 힘들었다. 학보사 기자라는 직함만 떴면 평범한 학생에 불과한 내게 사람들은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별 탈 없이 기사가 나간 후에도 다른 기사를 취재할 때 관련 부처 직원 중 한명에게 세민전 기사에 대한 보복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세민전 취재는 지금까지의 학교생활에 회의감까지 느끼게 했다.

내가 만평 코너를 맡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만화를 좋아하고 지난해에 만화 동아리에 들었던 경력으로 이번 학기 만평 기자가 됐다. 만화를 좋아하는 것과 달리 사실 나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린다. 독자위원들도 그동안 나의 만평에 대해 아쉬움을 표해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림실력보다 더 안타까운 점은 만평에 대한 학교의 규제였다. 세 번째 호에 실린 교과서 국정화 관련 만평은 다른 사람에 의해 수정된 후 나갔다. 또한 지난 호에는 원래 박철 전 총장의 노조 탄압을 비판하는 만평이 실릴 예정이었다. 마감 주를 거쳐 월요일이 되자 만평을 다른 주제로 다시 그리라는 연락을 받았다. 본래 의도와 달리 급하게 그린 주점 만평이 지난 호에 실려 아쉬웠다.

두 달 간의 정기자 생활은 나의 생활과 성격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기삿거리가 있으면 친구들이 한숨 돌리는 쉬는 시간에도 취재하러 갔다. 낮가리는 성격은 취재를 다니며 극복하고 있다. 학보사 생활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힘든 일들은 나를 더 단단하게 해줬고 기자라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게 해줬다.



유시현 기자

어깨너머 듣는 교양

세계를 비추는 가장 넓고 오래된 창



김세리(미네르바 교양대학 · 서양미술사 입문강의)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우리는 보고 또 본다. 모두가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 휴대폰의 작은 창 안에는 모든 세계가 담겨있다. 그렇다면 과연 옛 사람들은 어떤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을까?

가장 넓고 오래된 창은 단연 최초의 시각 매체인 회화일 것이다. 회화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됐고 문자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소통의 체계를 갖추어 왔다. 그러나 늘 미술책의 첫 장을 장식하는 선사시대의 동굴벽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현대인이 생각하는 미술 작품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동굴벽화는 미술관에 가지런히 걸려있는 그림처럼 향유나 감상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다. 선사시대의 인류는 사냥을 나가기 전 풍족한 포획을 기원하며 그 그림들을 자신들의 거주지인 동굴에 남겼고 동물 그림들을 향해 창과 활을 쏘아대며 마치 그 포획물들이 실제인양 가상 현실을 즐긴 것이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자신의 손 안에 있는 휴대폰 속 각종 게임들에 탐닉하고 있는 모습은 이처럼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실제와 ảo원을 의도적으로 혼동하고자 했던 선사시대 인류의 유전자에 기인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회화의 기원은 기능적 차원을 떠나 결국 인간의 근원적 본성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술의 역사 또한 인간의 본성 및 정신의 변화 과정과 동일한 행보를 밟는다.

회화사에서 흔히 '양식'으로 번역되는 '스타일'은 본디 로마 시대에 '글 쓰는 데에 사용되던 도구'를 일컫던 '스틸루스(stylus)'로부터 유래했다. 즉 스틸루스는 예술가의 정신과 물질적 산물을 연결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도구였고 현대적 의미로는

일시
정지흰 벽을
도화지 삼고
단풍을 물감 삼아

늦기를 캠퍼스 건물 한 구석.
바쁘게 지나가다 그림 같은
풍경에 문득 멈췄다.
흰 벽과 단풍을 도구 삼아
어느 학생이 이런 예술작품을
만들어 냈을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예술을
발견해 소소한 행복이 느껴진
어느 가을날.

서명지 기자



정명(正名)

나준영(영어 · 영어 14)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정명이란 무엇인가. 그 이름에 상응하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학내 언론의 본령은 학생과 맞닿아 있다. 학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의 수행 여부는 독자위원 비평의 화두가 된다. 학보와 학교의 발전을 위한 충언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독자위원들은 다양한 창업 · 취업 정보에 대한 기사와 '외대 밖으로 행군하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에는 호평을 보냈다. 국제교류활동, 공모전 이야기를 다루며 학생들의 관심사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7면 주점 관련 기사는 시각적으로 잘 구성됐다는 의견이 있었다. 8면과 9면의 보도는 내용상의 연관성을 보이며 원만하게 편집됐다. 또한 새롭게 선보였던 여러 기획들이 순조롭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특히 법률 상담소 기사는 인상적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끌면서도 상담소에 대한 일상적 정보 이외의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각 형식과 내용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 또한 높았다. 학보는 단순 정보 전달 이상의

기능을 담당해 심층적인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바람직한 가치들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호는 분명 '알맹이'가 부족했다.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 동문들의 이목까지 집중된 도서관 건립에 관한 내용은 '도서관 열기, 어디까지 갔나?'하는 의문형 표제로 시작했지만 어디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아쉬움은 학보 전반에 걸친다. 대다수의 기획 기사는 그 분량에 어울리지 않는 피상적인 정보 나열에 그쳤다. 언론에게는 '사회화'라는 막중한 위상과 책임이 따른다. 특히나 학보에는 학내의 사회화라는 사명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학보가 처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성토힌하면서도 정작 교내 학생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들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심층적인 논의는 턱없이 모자라다. 신입 기자가 써내려간 평범한 단상의 나열보다도 적게 편성된 학생 정기총회 관련 기사를 보며 우리는 어떠한 자유를 꿈꾸며 어떠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그려야 하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애정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며

정재윤(동유럽 · 폴란드어 15) 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

비평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학보를 정독했던 독자위원 활동도 이제는 발행일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펼쳐보기에 이르렀다. 애정이 생긴 것이다. 나아가 학보에 대한 기자들의 깊어진 애정을 엿볼 수 있던 989호였다.

지난 989호에는 하반기 취업시즌에 맞춰 취업 및 창업에 관한 4개의 기사가 실렸다. 더불어 6면에 실린 '대의 활동'에 대한 기획기사와 동문 염지홍 디자이너 인터뷰 그리고 인터넷세대에 관한 사설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내는 긍정의 메시지가 조화를 이루며 적절한 구성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14년 만에 공식적으로 이란을 방문하는 것과 시기에 맞게 5면에 이란어과 교수님의 전문적인 글을 담아 외대학보의 특색을 놓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글로벌 법률 상담소'기사는 많은 학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독자위원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대동제 주점 재개와 학교 측의 징계 위원회 회

부 결정 사이에 있어서 합의 없이 주점설치를 강행한 총학 측만을 대변한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장과 신나는 집담' 심층 기사에서 1등 수상 팀의 수상 내용만제 시뮬레이션하지만 독자로서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겨 아쉬웠다.

아쉬운 점을 짚어내는 것이 보다 작은 부분이 되어감에 매번 더 나은 호를 발행하고 있는 기자들의 열정과 수고를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어 독자로서 기쁘다. 그리고 그런 발전 뒤에는 '우리는 아직도라는 제목의 지난 편의자 칼럼에서처럼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노고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교내의 다양한 사건을 취재하고 고발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언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끝까지 언론의 역할 사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외대학보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매해 11월만 되면

국부장 고정칼럼

▲전국의 대학교들이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일정에 돌입했다. 총학 선거는 학생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고 투표해 다음 해를 준비하고 기억하는 자리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학생들이 총학 선거를 통해 기대감 대신 의구심과 불안함에 빠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으로부터 일 년 전, 지난 해 11월 고려대학교의 총학 부정 선거 논란이 화제가 됐다. 선거를 앞두고 한 학생이 작년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시 후보였던 현 총학의 규정된 분량 이상의 홍보물 인쇄를 허용하고, 메신저를 통해 불법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등 총학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총학생회장은 자퇴했다.

▲지난 10일 동덕여대에서도 한 학생의 주장에 의해 학교 측의 제49대 총학 선거 개입 논란이 일어났다. 학생은 ‘양심선언’ 대자보에서 “학교 측이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하며 몇 가지 공약과 함께 총학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학생은 “학교의 제안을 거절하고 출마를 포기했지만 이후 선거에 입후보한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중에는 자신이 학교 측으로부터 제안 받았던 공약과 일부 일치하고 예시까지 같은 공약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된 선본은 반박대자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작성한 것이며 학교 측과는 절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생처장이 입장서를 통해 “실제로 양심 선언한 학생을 만나 총학 입후보 권유를 했고 순수한 마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며 사실을 인정했고 결국 다음날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는 학교 측의 총학 선거 개입으로 판단해 선거 무산 결정을 내렸다.

▲우리학교도 총학 선거로 시끄러운 건 마찬가지다. 글로벌배움터 단일후보인 ‘한울’은 2주의 선거 유세 기간 중 1주일동안 별다른 선거운동을 진행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의 1회’ 처분을 받았다. 또한 그들의 공약이 애매모호하고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공약이 부족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후보자들은 글로벌배움터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단과대인 통번역대와 국제지역대 학생회장 출신들로, 스스로 단선에서는 쉽게 당선될 것이라 생각해 공약에 별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매해 11월 부정선거와 실효성 없는 공약 남발, 원칙 무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대학사회가 얼룩지고 있다. 기성 사회에 대한 소금 역할이 기대되는 대학 내 학생회 선거가 점차 현실의 정치판을 닮아가고 있다.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마저도 떨어지며 학생회는 그야말로 위기를 맞았다.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이러한 총학생회 선거의 어두운 면이 지목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거를 준비하는 총학과 선본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학생들에게 깨끗한 선거 운영과 진정성 있는 공약들을 보여준다면 총학생회 선거가 훨씬 나아질 것이다. 앞으로는 정말 대학생다운, 대학생들의 선거를 기대해본다.



강철로 된 무지개

일제시대 광복을 노래한 이육사의 시 ‘절정’에 나오는 구절이다. 희망의 상징인 무지개를 의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만한 구절을 찾아보기 힘들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인간내면의 강인함을 학술적으로 승화시킨 인물로 칼 포퍼(Karl Popper)를 들 수 있다. 그는 유대인으로 2차 세계대전을 살아내며 ‘열린사회(Open Society)’를 통해 철의 무지개를 구현하고자 했다. 요컨대, 열린사회란 ‘만민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사회’,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는 사회’,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생존방식이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말한다. 하나의 도그마(Dogma)에 의해 형성되고 소멸되어지는 여느 체제와 달리 생명력이 강할 뿐 아니라 지속성장이 가능한 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사회상이다.

이 같은 열린사회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가 언론이다. ‘사회적 담론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감시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대변하는 기능을 하기에 성숙한 민주사회일수록 언론인에 대한 존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언론에 대한 신뢰와 인식을 보면 그 사회의 발전과 민주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훌륭한 언론인들을 가장 많이 배출해 온 우리학교 학보사 기자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부당한 대우가 보고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모 학과의 학생집행부와 모 부처의 교직원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잠시나마 자괴감에 빠진 기자들에게 ‘강철로 된 무지개’를 세울 것을 응원한다. 살아있는 조직이 호응하는 자유를 수호해야 할 언론인의 사명 의식과 실천의지는 때론 초인의 그것이 돼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들에 연루된 구성원들에게 대한민국 언론의 모태인 우리학교 일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것을 당부한다. ‘철의 무지개’는 지지 않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총학생회 선거가 형식적인 행사가 돼선 안 된다

총학생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더불어 선거 입후보자도 점점 줄고 있고 나온 입후보자마저도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번 해 우리학교 양배움터 선거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서울배움터에서는 17일 오전 6시까지 입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해 또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다. 2011학년도부터 5년 연속으로 11월 본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비상대책위원회가 ‘성적평가방식 소급 적용’ 관련 일을 전담했지만 정식 총학생회가 아니어서 학교 측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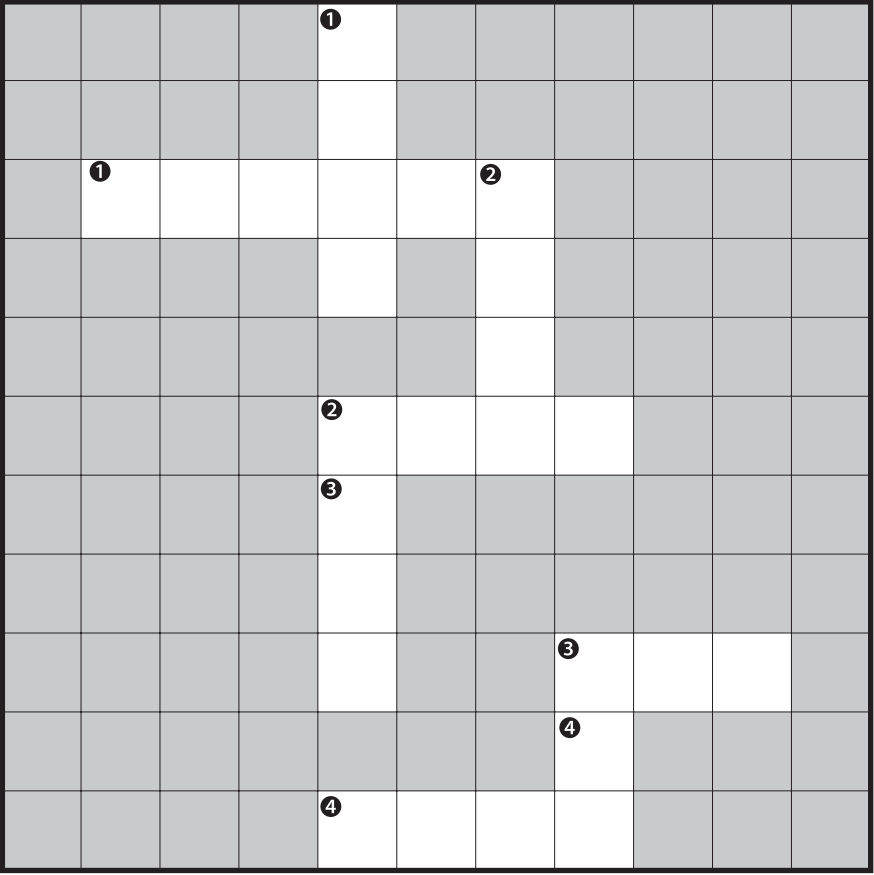
글로벌배움터에서는 단일후보가 출마했다. ‘한울’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 후보 등록 후 일주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1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들은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내세운 공약은 이미 결정된 사업’이라는 비판과 ‘실현이 어려운 공약’, ‘이공계 소외 공약’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공약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난 여론도 쏟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기대감과 선거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떨어뜨려 학생들로 하여금 선거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총학생회 선거가 학생들의 인식 속에서 점차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행사’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 선거는 축제나 학술제처럼 때가 되면 하는, 그런 가볍고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다. 총학생회 선거는 다음해 학생들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학생들의 대표자를 뽑는 자리다. 당선된 총학생회는 작게는 교내 시설 개선에, 크게는 등록금 동결과 학사제도 개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어야 할 자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학생들은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된다. 학생들은 다시 한 번 총학생회와 선거의 의미를 고찰해보고 지난 몇 년간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현실과 매해 반복되는 시원찮은 공약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십자말풀이



가로
1. 한반도 00 0000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2면 참조)
2. 0000 거리에서는 쿠바를 사랑한 문학가 헤밍웨이가 머무르며 원고를 쓰던 호텔방과 고급호텔에서 열리는 살사쇼를 볼 수 있다. (4면 참조)
3. 제 1회 로컬리티 챌린지 탐사보고회에서 마그레브1팀 < 잃어버린 2시간>은 000 청년들을 주제로 탐사했다. (5면 참조)
4. 김진규씨를 소설가로 만들어준 책인 <00 00>는 조선시대 중상류층 사람들의 얹히고 설킨 사랑이야기다. (8면 참조)

세로
1. 인도의 ‘0000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공정무역이 활발히 이뤄지며 지역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뤄지고 있다. (5면 참조)
2. 회화사에서 흔히 ‘양식’으로 번역되는 ‘스타일’은 본디 로마시대에 글 쓰는 데에 사용되던 도구를 일컫던 ‘0000’로부터 유래했다. (6면 참조)
3. 지난 18일 서울배움터 0000 국제회의실에서 ‘제1차 케이무브 찾아가는 멘토링’이 개최됐다. (2면 참조)
4. 쿠바는 ‘국’과 ‘000’을 화폐로 사용하지만 어떤 화폐를 쓰느냐에 따라 체감물가가 24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에 배낭여행자들도 주로 000를 사용한다. (4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영화예매권 2장, 또 다른 1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거너머 듣는 교양(7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편집장 이진형 010-7323-1915, 89matteo@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견진만
편집장 이진형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01
www.hufspress.net

모든 문장을 나를 위해 존재한다

소설가 김진규 씨는 우리학교 이란어학과 1992년 졸업생이다. 그녀는 2007년 소설 <달을 먹다>로 데뷔해 2009년 산문집 <모든 문장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소설 <남촌 공생원 마나님의 280일>, 2010년 소설 <저승차사 화율의 마지막 선택>을 발표했다.

김진규 (이란어 88)

높고 병든 아버지의 책장은 낡은 책들로 가득했다. 톱툰한 질감의, 누렇게 바랜 종이들에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과 해독이 불가능한 문자들이 가득했다. 나는 그 세계가 언제나 막연하고 두려우면서도 욕심이 났다. <모든 문장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김진규

“작가가 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 우연이었고, 시간의 힘이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 미친 듯이 읽었다. 19살부터 20년 가까이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읽다보니 머릿속으로 넣는 것은 많은데 나오는 것이 없었고, 이만큼 읽었는데 ‘나도 한 번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다보니 자연스레 쓰게 된 것이다. 결과물이 자연스레 나왔고 문학동네 공모에 참가했는데 운 좋게 당선됐다. 나는 원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하다 보니 길이 보이고 방법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냥 평소에 쓰던 것들이 조금씩 모였겠다. 조금씩 쓰던 것들이 모여 책이 됐다.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 커지듯이.”

“그냥 그렇게 살면 평생 누구 엄마, 누구 마누라로만 살 것 같아서...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

-2010년 <저승차사 화율의 마지막 선택> 이후 작품이 없다. 최근 근황은?

“생계형 글을 쓰고 있다. 여기저기 기획사나 신문사 등... 다음 작품 구상은 하고 있는데 밀고나갈 상황 이 못 된다.”

-근황을 묻는 질문에 생계형 글을 쓰고 있다는 그녀의 얼굴엔 아쉬움이 묻어있었다.

“사람이 생계에 매이면 뒤로 밀려가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먹고 살기 위해 좋아하는 일을 제쳐두면 삶에 낙이 없고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일이어도 관심 있는 분야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항상 딸에게 하는 말이다. 소설을 못 써도 글을 쓰고 있으니 하나의 연습이라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만약 내가 글이 아니라 어디 사무직을 한다면 정말 불행할 것 같다.”

-그녀는 졸업 직후 결혼을 해 가정주부가 됐다. 당시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이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아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고된 집안일과 마주했을 때 그녀에게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다.

“집안일이나 육아라는게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도 티가 잘 안난다.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게다가 매일 매일 반복된다. ‘내가 이리려고 공부했나?’하는 생각 많이 했다. 나는 오히려 학생 때보다 집안일을 하면서 근원적인 물음을 많이 가졌다. ‘나는 무엇이며 왜 태어났고 왜 사는가’같은 것들. 현실이 너무 싫어서 책을 읽었다. 적어도 책을 읽을 때만큼의 현실의 ‘나’를 잊고 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나. 현실의 모든 것을 잊고 책 속으로 도피한 것이다.”

-그녀를 소설가로 만들어준 책인 <달을 먹다>는 조선시대 중상류층 사람들의 얹히고 설친 사랑이야기다.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어두운 면을 가진다. 즉 <달을 먹다>엔 완벽한 사람이나 행복한 결말을 맞는 사람은 없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우울증으로 힘들어 할 때, “당신에겐 출력이 필요해, 입력된



만큼. 그러지 않을 미칠 거야!”라고 했다. 어쩌면 그녀는 남편의 말처럼 미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우울증을 작중 인물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 것이 아닐까?

“어떤 소설가들은 인물을 만들어두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소설을 쓴다는데, 나는 그게 안 된다. 그런 작가들은 정말 고수인 거다. 나는 내 인물에 온전히 빙의해야만 글을 쓸 수가 있다. 사실 내 첫 번째 책인 <달을 먹다>와 <남촌 공생원 마나님의 280일>은 동시에 구상했던 작품인데, 전자는 정말 끝없이 우울하고 무거운 반면에 후자는 경쾌한 마당놀이 같은 작품이다. 나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빙의해야만 이야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작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선 <달을 먹다>를 마무리 짓고 다음 작품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녀는 2007년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아 데뷔했다. 그녀에게 가정주부인 것 외에도 특이한 점이 있었다. 수상하기 전에 시나 단편소설을 써본 적이 없고, 처음 쓴 장편소설로 덜컥 상을 받은 것이다. 그녀의 글 솜씨는 타고난 것일까?

“아니다. 그냥 그나마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도였다. 무슨 말이나면 학창시절에 글쓰는 숙제를 내주면 어렵지 않게 해내는 정도? 빛나는 재능은 하나도 없었다.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느껴지는 재능 같은 것은 절대로 없다. 음악 좋아한다고 모두 음악가되는 것이 아니듯이. 그냥 책을 좋아하기만 했다. 시나 소설을 딱히 써 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있었다. 주변 환경을 볼 때 머릿속에서 문장으로 그것을 구성해 보는 그런 습관. 여기서 단어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버스에서 보이는 의자나 바깥 풍경을 머릿속에서 문장으로 만들어보고 그랬다. 이 습관 덕에 어딜 돌아다녀도 심심할 때가 없었다. 지금도 소설을 쓸 때 머리 속에서 그림을 그린 후에 보이는 그림을 글로 표현한다.

-그런데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작가들은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고 말한다. 너무 겸손한 것 아닌가?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선 글을 쓰는 재능이 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가들 사이에서 ‘재능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능은 없는 것 같다. 원래 너무 잘 쓴 글들이 많으니 그들과 비교하면 내 글이 그 수준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만한 저자

의 글은 정말 멋진 글일 때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면 글이 좋지 않구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른 작가들도 같은 생각으로 자신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거다.

-그럼 진짜 잘 쓴 글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주제 사라마구의 <돌멩이>에서 대륙이동설을 말하는 부분. 발상, 표현력, 공부 삼박자가 완벽한 멋진 문장이다. 이런 글을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느낀다. 나는 저 세가지 중 공부에 관해선 최고인데...”

-그녀의 말대로 전작 <달을 먹다>, <남촌 공생원 마나님의 280일>, <저승차사 화율의 마지막 선택>을 보면 소설을 쓰기위해 많이 공부한 티가 난다. 조선시대 역사적 사실에 관한 서술이 대단하다.

“우선 자료는 정말 많다. 국회도서관에 가면 논문도 볼 수 있고 검색도 되고, 공부는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어느 부분에 대해 써야하면 그 분야에 대한 공부는 전혀 힘들지 않다. 억지로 못해도 재미가 있으면 다 찾아지고 쓸 수 있다. 내 이야기의 팔 할은 공부에 의지한다. 공부가 지겨워지는 순간 이야기는 없다. 재능 없는 자의 비극이다.”

-그녀의 책 <달을 먹다>, <남촌 공생원 마나님의 280일>, <저승차사 화율의 마지막 선택>은 모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녀는 소통의 부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별다를 게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옛 시절을 빌려왔다고 한다. 그녀에게 현대시대를 이야기할 생각은 없을까?

“내가 현재 시대를 바라볼 안목이 부족하다.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현대 이야기를 말하려면 기준과 의식이 어느 정도 잡혀야 한다. 그래야만 현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자료나 누군가의 판단에 도움 받지 않는 것에 자신이 없다. 늘 판단하려면 자료와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과거는 자료가 많으니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압축한 것 일수도. 재능보다는 노력의 결과물로 쓰니... 그리고 나는 현대 이야기는 재미가 없다.

내 이야기의 팔 할은 공부에 의지한다. 공부가 지겨워지는 순간 이야기는 없다. 재능 없는 자의 비극이다. <저승차사 화

율의 마지막 선택>, 김진규

-2010년 독자의 만남에서 아직도 자신이 소설가라는 것에 정서불안(역할갈등)이 있다고 했다. 아직도 소설가라는 이름이 불안한가?

“내가 소설가라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려면 작품으로 말을 해야 하는데 세 작품 이후 책임 없으니 그때보다 자신감이 더 떨어졌다. 지금도 ‘내가 재능이 있나?’하는 생각이 든다.”

-그녀의 책 <모든 문장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에서 ‘소설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그녀는 ‘아니, 나는 소설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썼다. 소설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소설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인가?

“책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달라지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문학이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학은 즐기는 것이다. 정서를 위한 도구지 혁명을 논하기엔 문학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다. 물론 누군가의 글은 주먹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한풀이가 될 수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작가마다 다르기도 하고 독자마다 다르기도 하다.”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한 건, 표면장력의 끝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 방울만 더 없으면 바로 터질 것 같은 위태로움을 내 안에서 느꼈다. <달을 먹다>, 김진규

문학이란 무엇일까? 그녀는 문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건 문학에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나는 그녀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녀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녀의 삶을 또 한 번 크게 바꾼 것도 책이고 문학이지 않았다.